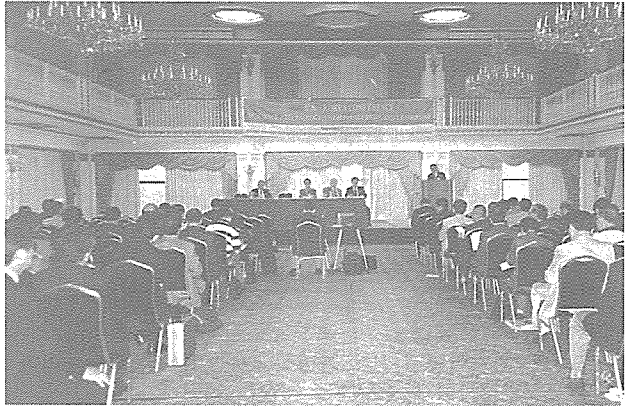


美시카고서 '2000 한미학술회의' 성황

과총·재미과학협 공동주관 첨단정보교환 협력모색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재미과학협/회장 정호)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시카고 Drake Hilton Hotel에서 '2000한미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교포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간의 첨단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 학술회의는 김병수 과총회장과 이기억 재미과학협 전 회장의 개회사, 박익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5개분과 3개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되어 이결삼 과총사무총장을 포함한 대회임원 11명, 국내측 논문발표자 39명, 재미과학협대표 11명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논문발표와 의견교환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는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



회'와 결해 개최하므로써 전세계 교포과학기술계 중진들이 함께 참가하여 사업효과를 한층 높였다.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도 같이 열려

네트워크사업 참여·해외고급두뇌활용방안 등 협의

한편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2000년도 총회는 8월 31일~9월 2일 시애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金炳洙 과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의 유대강화는 물론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한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을 목적으로 1992년 5월에 창립된 협의회는 비록 8년여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외 동포과학기술자들의 높은 기대와 참여 속에 소기의 목적사업을 전개해왔다."고 소개하고 "재외과학기술자 여러분



들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곳 과학기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입지를 확고히 유지해 오는 한편,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연합회에서는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을 한민족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민간차원의 통일기반 조성은 물론 남북과학기술 공동관심분야 또는 취약기술의 상호 보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국내 회원단체 및 재외과학협, 과학기술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구축사업참여,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제도활성화방안, 남북과학기술교류증진을 위한 재외과학협의 역할이 집중 논의됐다. 이 밖에도 각 재외과학협별 활동보고에 이어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의 장래와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동협의회에 북한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3개항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97